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1-10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양을 치는 목자로, 성도는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양은 목자가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양에게는 몇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잘 속고 분별력이 없습니다. 또 넘어지면 혼자 일어날 수 없고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양은 이기적이어서 오직 자기 먹이에만 정신이 팔려 주변을 살피지 않고 제멋대로 가버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방어력도 전혀 없습니다.

양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시력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귀가 잘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아주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양들은 눈이 잘 보이지 않기에 서로의 뒤에 바짝 붙어 다니며 ‘매~’ 하는 소리를 내면서 그 소리를 듣고 함께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소통 창구가 바로 목자의 음성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 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 10:3-5)**

이 말씀을 보면,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양에게 ‘듣는다’ 는 것은 ‘살기 위한 수단’ 으로 보아도 무방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도를 양으로 비유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도도 양처럼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하며, 예수님도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양이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되신 주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는

우리의 시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도 두가지 종류의 목자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삯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헤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삯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 10:11-15)**

성경은, 선한 목자와 삯꾼 목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와 삯꾼 목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선한 목자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양의 생명’에 있습니다.

그러나 삯꾼 목자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유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상태와 상관없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따지며 행동합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은 첫째 교역자들에게 적용이 되고, 둘째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1. 선한 목자는 생명에 집중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10)**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하신 ‘사명선언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유일한 이유는 ‘영혼 구원’ 입니다.

그외 다른 일들은 사실 부수적인 일들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2. 선한 목자는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그 뿐 아니라 풍성한 꼴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신 것도 귀한데,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은혜의 양식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 선한 목자되시는 예수님의 채우심을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 3. 선한 목자는 공평합니다.

선한 목자는 모든 양들에게 공평한 사랑과 나눔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에게 잘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도 인간이기에 이렇게 잘 대해주는 성도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 고마운 마음이 더 특별한 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양이든, 피해를 주는 양이든 모든 양들을 공평하고 동일하게 사랑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 4.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 10:11)**

이스라엘의 목자는 실제로 양을 보호하기 위해 짐승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지키며, 때로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샅을 받고 일하는 목자는 짐승이 오면 제 살길을 찾아 도망가 버린다고 합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자신의 죽음을 맞바꾸신 것입니다. 마치 양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와 같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나 감사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그런가보다’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심각한 영적 장애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기, 마실 수 있는 물, 밝은 햇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대속해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입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매일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님의 희생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 5. 선한 목자는 우리를 이해해 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 10:14-15)**

예수님은 우리를 안다고 하십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요즘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고독함을 느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속깊은 이야기를 나눌 대상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은 많이 있으나,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선한 목자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상황과 처지,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지만,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지만, 이미 예수님은 나의 눈물의 의미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이 붙들려 왔을 때에도 그녀는 예수님께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디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녀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며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가 필요할 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것은 추상적인 의미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직 그 분만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선한 목자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목자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임을 믿는다면, 또,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진정 믿는다면.. 선한 목자되신 예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 나눔의 시간

1. 오늘 말씀에는 양의 특징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양은 어떤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고 했는지 기억이 나는 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2. 오늘 말씀에서는 ‘선한 목자’와 ‘삿꾼 목자’의 차이점에 대해 말하면서, 특별히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한목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마치 길을 잃은 양과 같이 어디로 가야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했다면, 그리고 (지금 돌이켜 보니) 선한 목자되신 예수님께서 그 상황속에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경험이 있다면 목원들과 함께 진솔하게 그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